

코로나 호황 맞은 배달앱 라이더 부족 “속이 타네요”

코로나 재확산에 배달앱 이용 ↑
주요 배달앱 월 결제 1조 육박
7월 배달시장 규모 6.4조 달해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고 재택근무 분위기가 확산하는 등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배달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증가하는 수요에 대비할 인력이 부족해 배달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일 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 7월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주요 배달앱의 월 결제금액이 9437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 결제자 수는 1504만명으로 추정된다. 와이즈앱은 만 20세 이상의 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했으며, 10대의 결제금액과 간편결제, 현장결제, 쿠팡이츠, 카카오톡 주문하기 등까지 포함하면 실제 배달앱 결제금액 시장은 더 커진다.

배달 시장은 지난 3월 결제금액이 1조8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감소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8월 결제금액이 다시 증가했다. 2018년 4조1000억원, 2019년 7조1000억원이었던 배달 시장 규모는 올해 7월까지 이미 6조4000억원으로 조사되며 매년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바로고 라이더들.

/바로고

있다.

배달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배달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라이더 수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배달해야 할 음식은 많은데 라이더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배달대행사는 라이더를 확보하고 이탈을 막기 위해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인상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결국 소비자에게 배달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배달대행업체 생각대로와 바로고가 일부 지사에서 배달 수수료를 인상했다. 라이더의 업무 과중을 막고 원활한 배달 업무 처리를 위해 라이더 모집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7월 초 2000명 수준이었던 라이더

수를 최근 3000명까지 늘렸다.

바로고는 현재 라이더를 모집 중이다. 지난달 26일부터 약 5000명에 대한 모집을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모집 인원의 10분의 1 정도만 지원했을 뿐이다.

바로고에 따르면 8월 넷째주 일요일이었던 지난 23일 바로고 배달 수행 건수는 55만2000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 주문은 폭증하고 있는데 라이더 수는 부족해 난감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배달대행업체는 라이더 임금을 올려서라도 라이더를 잡아두려고 할 텐데 배달 수수료 인상이 소비자에게 부담되는 구조로 바뀔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삼성전자, ‘라이프스타일 TV’ 라인업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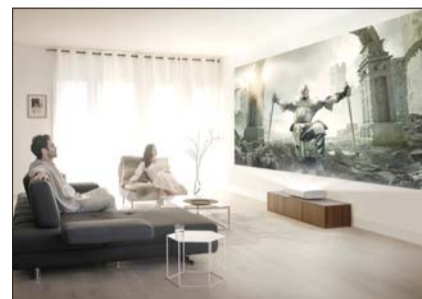
‘더 프리미어’ 보급형·고급형 공개

삼성전자가 가정용 빔프로젝터로 ‘라이프 스타일 TV’ 라인업을 한층 확대한다.

삼성전자는 2일 버추얼 프레스 컨퍼런스 ‘멈추지 않는 삶’에서 ‘더 프리미어’를 공개했다.

더 프리미어는 가정 환경에서도 소비자에게 영화관 같은 스크린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라이프스타일 TV로, 트리플 레이저 기술을 적용해 차원이 다른 영상 시청 환경을 제공한다.

이 제품은 트리플 레이저가 적용된 고급형 모델과 싱글 레이저가 적용된 보급형 모델 2가지로 이원화되며, 북미를 시작으로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더 프리미어’.

/삼성전자

등 유럽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트리플 레이저 적용 모델은 최대 330.2cm(130형)까지 스크린을 확장할 수 있으며, 삼성전자의 고화질 기술이 그대로 적용돼 TV에서 구현되는 것과 동일하게 4K 화질을 즐길 수 있다.

/김재용 기자

SK네트웍스, 삼성 스마트폰 중고가치 보장

노트 20·Z플립 5G·Z폴드2 모델 보상

SK네트웍스가 최신형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높은 중고 가치를 보장해준다.

SK네트웍스는 10월 말까지 삼성전자의 신규 스마트폰 구매고객 대상 특별 보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갤럭시 노트20과 갤럭시 Z플립 5G 모델 및 갤럭시 Z폴드2

구매고객이다. 성능검사를 통한 보상 금액에 모델에 따라 20만원을 추가로 보상해준다.

특히 SK텔레콤 고객은 SK네트웍스가 T월드 매장에 설치한 민팅 ATM(안심거래 키오스크)을 이용해 현장에서 즉시 기존 폰의 상태 및 성능을 확인해 보상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 삭제까지 맡겨진 후 반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용 기자

LG전자, 가로회전 스마트폰 ‘윙’ 14일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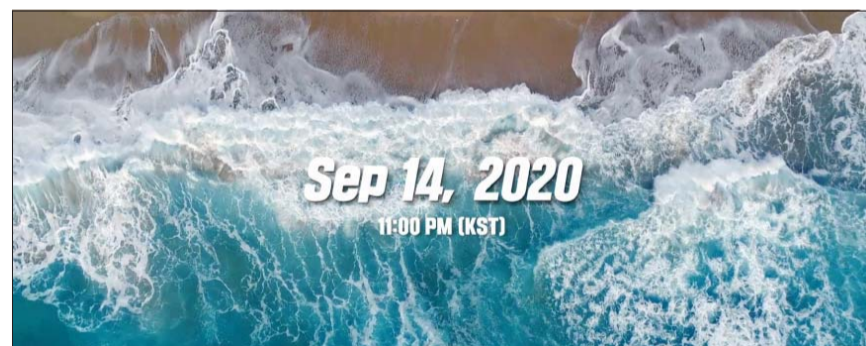
‘익스플로러 프로젝트’ 공개 행사
새로운 폼팩터로 스마트폰시장 공략

LG전자가 새로운 폼팩터로 스마트폰 시장을 다시 한번 뒤흔든다.

LG전자는 14일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을 공개하는 행사를 연다고 2일 초청장을 발송했다.

이른바 ‘익스플로러 프로젝트’다. 초청장 영상에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할 때 삶은 기대 이상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새로운 폼팩터를 소개할 것을 암시했다.

‘LG윙’으로 불리는 모델 공개가 유력하다. LG윙은 LG전자가 개발 중인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디스플레이 2개가 겹쳐진 상태에서 메인 디스플레이



LG전자 ‘익스플로러 프로젝트’ 초청장 영상.

/LG전자

를 가로로 돌려 ‘T’자형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이다.

LG전자는 ‘익스플로러 프로젝트’로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사용성으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진화된 사용성’에 무게를 두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발굴하는 것을 핵심으

로 한다.

LG전자는 지난 10여 년간의 스마트폰 시장은 획일화되고 있는 반면, 고객의 사용 패턴과 라이프스타일은 오히려 개인화되고 세분화되고 있다는 것에 집중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소개했다.

/김재용 기자 juk@

LG CNS, ‘AI튜터’ 어린이용 버전 출시

중학생까지 영어 회화 학습 가능

LG CNS가 인공지능(AI) 영어교육 서비스 ‘AI튜터’의 어린이용 버전을 선보였다.

AI튜터는 AI가 수십 만개의 영어 문장을 학습해 스마트폰으로 영어 회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된 비대면 외국어 학습 서비스다.

어린이용 AI튜터는 영어교육 전문 기업 윤선생이 어린이들을 위해 개발한 360가지 상황별 말하기 교육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영어 실력에 따라 어린이부터 중학생까지도 AI튜터를 활용한 영어 회화 학습이 가능하다. 월 1만9800원만 내면 나만의 AI 과외 선생님을 스마트폰에서 만날 수 있다.

/구서윤 기자



LG CNS가 인공지능(AI) 영어교육 서비스 ‘AI튜터’의 어린이용 버전을 선보였다. 아이들이 AI튜터로 회화를 하는 모습. /LG CNS

AI튜터는 윤선생이 어린이 교육용으로 개발한 2000여 개의 문장을 AI가 딥러닝 기술로 학습해 문맥 인지가 가능하다. 어린이가 마치 실제 사람과 대화하듯 재미있게 영어 말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 지능을 높였다.

/구서윤 기자

LGU+ “결제기기 통신장애 걱정마세요”

‘U+결제안심인터넷’ 출시

LG유플러스는 업계 최초로 유선인터넷 장비에서 무선인터넷으로 자동 전환해 소상공인 매장에서 끊김 없는 결제 환경 구축이 가능한 ‘U+결제안심인터넷’ 상품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U+결제안심인터넷은 카드결제기, POS기기 등 인터넷 기반의 결제기기 사용시 통신장애 없는 안전한 결제 환경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유·무선인터넷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유선인터넷과 연결된 LTE 라우터가 자동으로 인터넷 연결 상태를 점검한다. 만약 유선인터넷 응답이 없으면 장애로 감지, 자동으로 LTE 무선 통신을 연결한다. 이후 유선인터넷 연결이 정상화되면 통신방식을 본래대로 전환해 장애상황에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결제 기기를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엔비디아, GPU 시연에 LG 올레드 8K 활용... “영상처리 탁월”

3300만 화소로 섬세한 화질 구현

LG전자가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 카드를 제대로 구현함을 인정받았다.

2일 LG전자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RTX30 론칭 행사에서 ‘LG 시그니처 올레드 8K(모델명: OLED88ZX)’을 활용해 제품을 소개했다.

LG 시그니처 올레드 8K는 3300만 개가 넘는 화소 하나하나가 자유자재로 빛을 조절해 더욱 섬세한 화질을 구현한다. 또 8K 해상도 콘텐츠를 60Hz(헤르츠) 주사율로 재생할 수 있고, 최대 48Gbps(초당 48기가비트) 대역폭을 지원해 놀라운 속도로 영상 신호를 처리한다.

엔비디아는 이런 탁월한 기능을 높

이 평가해 최신 GPU 성능을 시연하는 제품으로 LG 올레드 TV를 선정했다.

LG 올레드 TV는 차원이 다른 화질은 물론 LCD TV보다 뛰어난 1ms(밀리세컨드, 1000분의 1초) 응답속도 등을 갖춰 몰입감이 중요한 게이밍 TV로도 활용하기에 제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재용 기자